

‘후후한 교사, 꿈틀거리는 아이들’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출일교회 가정예배부

설교

여러분은 혹시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시험에 지거나, 친구와 싸우거나,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 날엔 마음이 무겁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자책하게 돼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 한 여인은 그런 부끄러움을 넘어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을 때, 한 여인이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죄인’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 발 옆에 서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으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반면 바리새인 시몬은 곁으로는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손을 씻길 물도 주지 않았고, 입맞춤으로 인사하지도 않았죠. 그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여인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돌아올 때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실패했더라도, 실수했더라도 팬잖아요. 예수님께 나아오면 언제나 새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와 사랑으로 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친구를 용서하고, 가정에서 따뜻한 말을 전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답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청소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네가 내 사랑받는 자다.”

출일교회 가정예배부

예배 순서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하나님 사랑이 다같이

말씀봉독 누가복음 7:36~50절 다같이

설교 사랑이 많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 설교자

말씀나눔 다같이

합심기도 다같이

축복기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다같이

★ 찬송과 축복기도문과 말씀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양

하나님의 사랑이



☞ 찬양 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기 부끄러웠던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용서받은 여인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저희도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친구와 가족에게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1. 죄 많은 여인은 왜 많은 사람의 시선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갔을까요?
2. “용서받은 사람답게 사랑한다”는 말은 내 삶에 어떤 의미일까요?